호국불교, 순국선열을 품에 안다

현충일 맞아 부산·경남 지역 추모재 줄이어

현충일을 맞아 부산 · 경남 지역서 호국 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경남 함안 달전사(주지 원명)는 6월 6일 경내서 6.25전쟁 격전지 전몰 군인과 경찰, 민간인들의 넋을 위로하는 '제10회 순국선열 · 호국영령 위한 무차수륙대재'를 봉행했다. 국태민안과 지역발전을 기원하며 열린 이날 행사는 제례, 법요식, 화관무, 바라춤, 살풀이 등으로 진행됐다.

함안은 6.25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 가운데 하나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한 곳이다. 가장 치열한 전투지 중 하나로 꼽힌다.

주지 원명 스님은 "동족상잔의 뼈아픈 현장을 품고 있는 함안서 아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적군의 원혼도 위로한다"며 "구천을 떠도는 원혼의 몸을 벗고 구국의 수호신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한편 수륙대재에는 주지 원명 스님, 차정섭 함안 군수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리산 견불사(주지 보덕)는 '제19회 6 · 25군경 추모음악회'를 6월 6일 경내 특설무대서 개최했다.

견불사는 6 · 25 한국 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로 알려진 지리산 한 자락에 위치한다. 이에 견불사는 나라를 위해 지리산에서 전사한 7,300여 명 호국영령을 추모하고자 1997년부터 추모 법회 및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견불사는 "한국전쟁 당시 순국한 군인과 경찰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기릴 뿐 아니라, 전후 세대들에게 바람직한 역사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음악회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1부 추모제는 개회선언과 내빈소개, 추도사, 추념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으며, 2부 추모음악제에선 '그리운 금강산', '아름다운 강산', '아리랑' 등 10여 곡이 연주됐다. 무대에는 함양시골

낙동강 방어선 함안서 무차수륙대재

최대 격전지 지리산 견불사 19회째

추모재 외 추모음악회 등 '다채'

"호국영령 희생정신 잊지 말아야"

관현악단으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더하고 있는 다볕유스윈드오케스트라와 바리톤 강경원과 소프라노 성정하의 협연, 고운색소폰 앙상블, 초대가수 하명지 · 서정아 · 전부성 등이 함께 했다.

주지 보덕 스님은 "20여 년 전 지리산으로 들어올 당시, 전쟁으로 고통 받았던 영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파 추모음악회를 시작하게 됐다"며 "한국전쟁이 치열히 전개되고 안타까운 희생이 많았던 지리산 지역을 후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국의 달을 맞아 부산 경남 지역서는 연이어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추모법회가 개최됐다. 사진은 6월 6일 홍법사 경내 마당서 진행된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 모습.

한편 행사에는 견불사 주지 보덕 스님, 벽송사 주지 원돈 스님, 임창호 군수, 박정극 동국대학교 전 학술부총장 등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홍법사에서 '제26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은 한국전쟁 당시 미 해군 대령으로 참전한 리차드 헬퍼티와 그의 가족을 초대, 참전 의미와 순국 선열의 당시 모습을 전해 듣는 시간도 가졌다.

주지 심산 스님은 "홍법사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의 유지에 따라 26년 동안 호국영령을 위령하고, 불교 포교를 위해 힘쓰는 분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어 왔다"며 "호국의 숭고한 뜻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은 법어를 통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자신을 위해 살다 간 것이 아니다"며 "모든 생명과 조국을 위해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라며 순국 선열의 숭고한 뜻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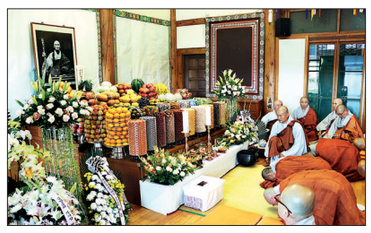
아울러 이날 '2016 호국의 숨결 대회'도 열렸다. 대회에는 초 · 중 · 고생 2,000여명이 그림, 글짓기, 서예를 통해 나라사랑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올해 26회를 맞은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에는 전 포교원장 혜총 스님,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 주지 심산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기자

경봉 스님 열반 33주기 추모 다례재

7월 1일 오전 10시 통도사 극락암



경봉문도회는 경봉 스님 열반 33주기 추모 다례재를 7월 1일 오전 10시 극락암 무량수각에서 봉행한다. 사진은 작년 추모다례재 봉행 모습

경봉문도회(회장 법산)는 경봉 스님 열반 33주기 추모 다례재를 7월 1일 오전 10시 극락암 무량수각서 봉행한다. 매년 다례재에는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주지 영배 스님, 경봉문도회 회장 법산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동참해 경봉 스님의 가르침을 기리고 있다.

1892년 출생해 16세에 통도사로 출가한 경봉(鏡峰)스님은 평생 화두를 참구하며 후학을 제접하고 대중을 지도했다. 스님은 통도사 불교전문강원 원장(1932년), 통도사 주지(1935년, 1949년)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 이사장(1941년) 등을 역임, 1953년 극락호국선원 조실로 추대됐다.

경봉 스님은 1982년 7월 17일 문도들에게 "야반삼경에 문빗장을 만져 보거라"라는 임종게를 남기고 원적에 들었다. 세수 91세, 법납 75세.

저서로는 법어집 〈법해(法海)〉, 〈속법해(續法海)〉, 시조집 〈원광한화(圓光閒話)〉, 유묵집 〈선문묵일점(禪門墨一點)〉, 서간집 〈화중연화소식(火中蓮花消息)〉 등이 있다.

한편 다례재 후엔 경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대구 성불암, 라오스 스님들 초청법회

6월 5일 아마린 스님 등 법문



성불암 신도들이 라오스 스님들에게 공양물을 올리며 기도하고 있다.

대구 달성군 성불암(주지 옥당)은 6월 5일 동남아 스님 초청 '유니버설 부다랜드 창설법회'를 봉행했다. 주지 옥당 스님은 이날 아마린(Amarin) 스님 외 4명의 라오스 스님들을 초청, 성불암 지도법사 반야씨리(Panya siri) 스님과 다문화 가족 등 300여 명과 함께 법회를 진행했다.

반야씨리 스님은 "한국불교는 앞으로 다문화 가족을 위한 포교 프로그램을 개발, 모두 함께하는 쉼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뜻에서 '유니버설 부다랜드'를 창설했다"며 "앞으로 동남아권 스님들을 매달 초청해 법회를 열고, 불자들의 동남아 성지순례 기회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초청된 아마린 스님은 라오스 · 태국의 탁발, 공양 등 사찰풍습과 승려들의 생활을 소개했다. 아마린 스님은 "부처님 말씀은 편안하고 맑은 마음으로 들어야 스스로 맑아질 수 있다"며 "삼업을 짓지 않고, 오계를 잘 실천하며 많은 불자들이 소원성취하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BBS, 제1회 부산문예창작마당

6월 18일 삼정더파크 동물원

BBS 부산불교방송(사장 수불)과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백명숙)는 6월 18일 오전 10시~오후 2시 부산 삼정더파크 동물원서 '제1회 부산문예창작마당'을 개최한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참가 부문은 글짓기(산문 · 시)와 그림 그리기, 사진촬영이다. 각 부문별로 부산광역시장상, 부산광역시의회의장상, 부산광역시 교육감상, 부산지방경찰청장상, 부산대학교총장상 등 모두 200명 입상자가 선정된다. BBS 부산불교방송 홈페이지와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카페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 1,000명. 우천 시에는 6월 19일로 연기. 하성미 기자

"어르신들이 바로 저의 부모님이에요"

가야사, 6월 8일 '제10회 가야사 효도 큰 잔치'

부산 가야사(주지 정현)는 6월 8일 가야사 경내 마당 특설무대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 잔치를 열었다.

가야사는 매년 지역 어르신을 초대해 점심공양 및 기념품을 베푸는 한편, 다채로운 공연을 마련해 어르신들에게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가야사 신도회 '관음회'와 '지장회', '다도회' 회원들은 함께 봉사하며 나눔행을 실천, 불심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올해 10회를 맞는 이날 효잔치에는 주지 정현 스님을 비롯해 (사)불국토 대표이사 범산 스님(영주암 주지)과 이사 법우 스님, 김진수 부산진구의회 의원과 지역 어르신 50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부산 가야사는 6월 8일 경내 마당 특설무대에서 지역 어르신을 위한 효 잔치를 열었다.

사물놀이패의 신명나는 공연으로 문을 연 효잔치는 중요무형문화재 이나경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와 그 제자들의 공연으로 이어졌다. 이밖에도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비 내리는 고모령', '울고 넘는 박달재' 등 노래 무대를 장식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주지 정현 스님은 "출가 후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 한편에 있었는데 지역 어르신들에게 공양 올림으로 효를 실천하는 것 같아 기쁘다"며 "오늘 정성껏 마련한 음식과 공연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불국토 대표이사 범산 스님은 "이번 달은 보훈의 달이라고 한다. 나라에 충성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건강하고, 주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며 "오늘 이 잔치에서 좋은 인연도 만나고 기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한편 가야사는 효 잔치뿐만 아니라 매년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하기, 쌀 나눔 등을 진행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부산 생명나눔 백일장… 대상 김도연 외

6월 7일 '제9회 백일장' 시상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제9회 시 · 산문 백일장' 시상식을 6월 7일 부산 서면 영광도서 문화사랑방에서 개최했다.

지난 5월 22일에 개최된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제9회 시 · 산문 백일장' 시상식이 6월 7일 부산 서면 영광도서 문화사랑방서 개최됐다. 대상은 △고등부 김도연(국제외고) · 손영민(장안제일고) △중등부 정지은(동주여중) · 김효민(해동중) 총 4명이 수상했다.

부본부장 지연 스님은 "백일장을 통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행복을 찾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며 "수상한 모든 분들을 축하한다"며 격려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매년 시 · 산문 백일장을 열고,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며 장기기증과 난치병 환우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알리고 있다. 하성미 기자

